

품명	비(非)합금 구리 가루	
HS code	7406.10	
관세율(%)	MFN('26)	RCEP
	3	1.9



▶ 해당 품목의 對일 수출은 '23년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, '26년 3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감률이 약 1,437.7% 증가함

한국의 연도별 對일 수출동향(HS code 7406.10) (단위 : 천 불, %)

연도	수출금액	수출증감률
2022	779	33.8
2023	574	-26.3
2024	1,334	132.4
2025	1,919	43.9
2025.3	62	-76.9
2026.3	958	1,437.7

자료 :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

▶ 비(非)합금 구리 가루는 합금 원소가 첨가되지 않은 구리 분말로,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높고 가공성이 우수하여 전기·전자 부품, 전도성 페이스트, 분말야금 부품 및 금속 코팅재 제조 원료로 활용됨

▶ 일본은 반도체 산업 재건과 첨단 제조 기반 강화 정책을 추진하며 관련 소재·부품의 공급망 안정화 및 조달 다변화를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음

▶ 이에 따라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동 품목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'26년 1분기 수출 증가 품목으로 선정함

우리나라 對일
수출동향

(HS 7406.10)

▶ 비(非)합금 구리 가루(HS 7406.10)는 6단위 단일세번으로, 우리나라의 對일 수출금액은 '26년 1분기 기준 약 1,437.7% 증가함

한국의 연도별 對일 수출동향(HS code 7406.10)

(단위 : 천 불, %)

구분	HSK	품목명	수출금액			
			2024년	2025년	2025년 1분기	2026년 1분기
1	7406.10-0000	비(非)총상조직인 구리 가루	1,334	1,919	62	958

자료 :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

수출금액 및
FTA 활용현황

(HS 7406.1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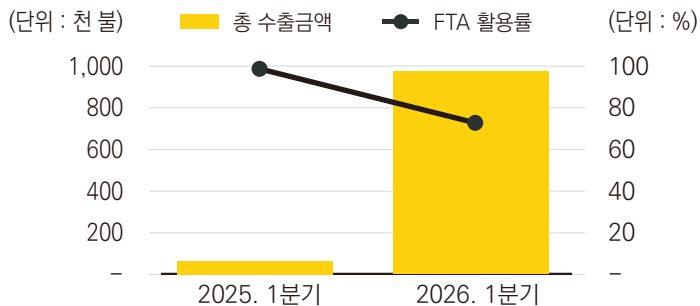
▶ HS 7406.10(비(非)합금 구리 가루) 對일 수출금액은 전년도 동기 대비 증가함

- FTA 활용은 '25년 1분기 98.2%, '26년 1분기 72.7%로 나타남
- 해당 품목의 RCEP 원산지결정기준(PSR)은 CTH or RVC 40%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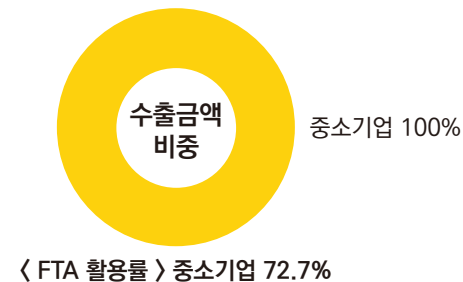
▶ '26년 1분기 기준, HS 7406.10호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은 중소기업 100%임

- 해당 품목의 '26년 1분기 기준 FTA 활용률은 중소기업 72.7%임

[HS 7406.10의 對일 수출금액 및 FTA활용률(2025.3, 2026.3)]



[HS 7406.10의 기업규모별 수출금액 비중(2026년 1분기)]



일본
수입 및 관세 현황

▶ '26년 1분기 수입 금액 기준, 일본의 HS 7406.10의 5대 수입국은 독일, 영국, 한국, 중국, 이탈리아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수입액 기준 3위에 위치함

일본의 HS 7406.10 주요 5대 수입국별 수입금액 비중(2024~2026.3)

(단위 : %)

구분	독일	영국	한국	중국	이탈리아
'26.3	23.6	18.5	14.9	11.5	9.8
'25	24.4	20.7	13.1	5.9	7.1
'24	19.5	13.5	8.5	3.0	14.8

자료 :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

▶ 일본의 HS 7406.10의 5대 수입국(독일, 영국, 한국, 중국, 이탈리아)의 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

일본의 HS 7406.10 주요 5대 관세율 및 FTA 원산지결정기준

국가명	MFN(%)	협정세율		원산지결정기준
		협정	특혜세율(%)	
독일(EU)	3.0	일본-EU(EPA)	0	CTH
영국		일본-영국(CEPA)	0	CTH
		CPTPP	0	CTH
한국		RCEP	1.9	CTH or RVC 40
중국		RCEP	1.9	CTH or RVC 40
이탈리아(EU)		일본--EU(EPA)	0	CTH

자료 : 일본 세관 EPA 포털

시사점

▶ 일본은 반도체 산업 부흥을 국가 전략 과제로 설정하고 정부 주도로 설립된 Rapidus를 핵심 축으로 삼아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 미국·EU 등 첨단기술 R&D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

- 일본은 자국의 최첨단반도체기술센터(LSTC)-미국(NSTC)-벨기에(IMEC) 간 R&D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, 특히 반도체 소재·부품 및 장비 분야의 공정 기술 개발과 관련 소재의 공급망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

▶ 실제로, 일본의 對한·對중 수입 확대 추세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며, 우리 기업은 RCEP 활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극대화하고, 수출 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